

MISSION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무더웠던 건기를 뒤로하고, 조금은 시원해진 우기에 접어드니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1년 내내 더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지난 건기는 100년 만에 찾아온 살인적인 무더위였습니다. 전력이 모자란 탓에 계획 단전과 단수로 모든 국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빈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견디어 낸 후 맑은 우기... 반가운 빗 줄기에 엄~청 시원하고 비의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 우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서른아홉 번째 사역 보고서는 영상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영상 주소는 유튜브 창에 'ICCHI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 사역' 과 'KOMA Cambodia 연합사역'을 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은 사역은 캄보디아 교회사 역사를 연구하여 캄보디아 선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원 건축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고 KOMA Cambodia 연합 사역은 캄보디아 미래를 위한 장기 계획인 캄보디아 전역 유치원을 건립에 앞서 우선 유치원 교사들을 연합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문자보다는 영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유튜버"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고 영상으로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종 영상으로 보고서를 대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성도 여러분의 든든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힘내어 필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한 선교 자원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캄보디아를 위해 그리고 부족한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사 이형식,이은주 올림.

기도 제목

1. 더 낮은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므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2. 간 제공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PRAYER

1. 성년에 맞는 교회답게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드러내도록.
2. 사경회를 통해 마음의 발이 기경 되어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SHARING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새 본성을 받아 거듭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받은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두 본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늘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에서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으로 보이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종종 옛 본성인 마귀에게 속아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또한 분노하고 짜증 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인 새 본성을 가지면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생각은 “믿음은 우리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면 되지 왜 그리 야단이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광적이고 자기들끼리만 모인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폄박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행함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수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새 본성을 드러냄으로 그들 모두를 우리 품으로 안아가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서는 간절히 원하실 것이다. 주님의 바람이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 본성으로 옛 본성을 다스리며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주님! 간절히 비읍니다. 저희를 인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문일숙 집사

금주의 암송말씀

디모데후서3: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